

COVID-19 상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한 예비사회복지사의 실습경험에 관한 연구

배나래¹, 김지운^{2*}

¹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²건양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Study on Experience of Prospective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during COVID-19 Pandemic

Na-Rae Bae¹, Ji-Woon Kim^{2*}

¹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Child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한 사회복지전공 재학생들의 실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의 의의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재학생들의 실습 전후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탐색하여 위기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사회복지현장실습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상황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어려움으로는 일 학습 병행에 따른 시간조정의 어려움, 감염 우려로 실습 기관의 원활치 않은 실습상황, 제한된 실습 경험과 낮은 질의 수퍼비전, 실습기관의 선정에 대한 어려움,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실습 중단의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실습 후 학생들이 인식한 실습의 긍정적인 경험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공 본연의 의미를 이해하였고,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라포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제어 : COVID-19,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사, 예비사회복지사, 사이버대학교

Abstract This study is qualitative research with an aim of assessing experience of prospective social work student enrolled in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during COVID-19 pandemic. The results are shown below. First, the major negative answers of responders were the work-study imbalance of the student, the institution's concern for spread of infection, limited experience due to low-quality-of supervision, the difficulty on choosing institution, and worries on stop of practic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econd, the key positive answers of responders were awareness of true meaning of social welfare, a major of them, significance of field practic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n their field, and finally, dearness of rapport building between social workers and clients in social welfare practice settings.

Key Words : COVID-19,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Social Worker, Preliminary Social Worker, Cyber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Ji-Woon Kim(bella1456@kycu.ac.kr)

Received October 1,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October 25,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1.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복된 삶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실천 학문이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환경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엄격하고 철저한 사회복지교육은 사회복지 위상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회복지에 중요한 구성요소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실천 기술을 겸비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철학과 신념이 제고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실천가이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교육이 기반 된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적인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6-8].

대학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함에 있어 필수 이론 교과목과 선택 이론 교과를 교육 시키므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가치 및 태도 등을 가르친다[9].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필수교육과정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이론으로 습득한 지식을 실천현장에서 적용한다는 목적과 함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위치, 행동 방향을 익히도록 돕는다[15].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함께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년 8월12일 개정)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9, 11월 14일 확정 고시)를 하였다[2,3]. 주요 사항은 기관실습, 실습세미나 개정에 따른 내용이 고시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 적용 대상은 법령의 시행일(2020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침은 2020년 입학생부터 기관실습 시간이 종전 120시간에 160시간으로 확대 되었고, 실습세미나가 신설되어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최소 30시간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로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실습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30명 이내이다.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회별 실습지도자 1인당 지도학생수는 5인 이내로 한다는 등의 세부 내용의 지침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생활방역 강화 등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휴관 및 외부인 접근금지를 강화하는 조치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후 코로나 19 감염병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하였으나 2021년 8월, 제 4차 유행에 들어서며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학년도에 한하여 간접 실습 인정(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2413, 2020.5.20.)과 개정법령 대상 학생의 실습세미나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 인정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적용 시기를 2020년 1학기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서 실습이수 완화조치를 2020년 2학기까지 연장하는 안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1916, 2021.5.18.)[2,3].

코로나 19 감염증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실습 이수 완화조치를 발빠르게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실습 수업에 대한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시행규칙 첫 적용부터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이 지속되고 있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예비사회복지사인 재학생들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반응을 관심있게 관찰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실습에 참여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습 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보았으며 재학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COVID-19

국제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는 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인체 감염 확산의 심각성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넣었다[4]. COVID-19 바이러스는 2020년 10월에 영국에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를 양산하며 다시 전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안타깝게도 COVID-19의 합의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COVID-19(2019년12월) 이전에도 2002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일명: 사스), 2009년 신종플루(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일명: 메르스)[4,5]까지 감염성 질환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전 세계를 질병의 공포에 몰아 넣었으나, 2019년 12월에 발생된 COVID-19 바이러스는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며 다양한 변이바이러스를 양산하며 전 세계를 코로나 섯다운제에 들어가게 하였다.

2.2 COVID-19 팬데믹과 사회복지현장실습

사이버대학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한 교과목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예비 사회복지사인 학생들은 이론에서 습득한 교육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의 실천을 배우고 익히며 클라이언트와 접촉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정체감을 갖추게 된다[10,11]. 즉,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이론으로 배운 사회복지실습교육을 통해 실무를 익힐수 있으며 사회복지실천환경에 적응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철학과 윤리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수과목이다[15].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교과목 중 하나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는 교육을 지향 한다[1].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최초의 기회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이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경험하기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교육을

하는 필수과정이다[12-15].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감염 위기로 사회복지현장실습현장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의 감염을 우려 해 실습지도를 피치 못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나마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수칙 기준에 따라 실습 가능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원활하지 못한 진행상황을 인식하고 2020년도에 한해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를 발표하였다(2020년 5월20일 보건복지부 발표). 발표의 주요 내용은, 기관실습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전체 이수 시간 중, 40시간~80시간은 학교현장실습운영에서 규정한 간접실습(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 및 발표, 과제 등)으로 기관실습시간이 대체가능하며, 실습기관에서의 실습지도인원은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에 실습지도 가능한 인원을 기존 5명에서 10명이내로 확대하였다. 실습세미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의 세미나 수업이 어려운 경우 출석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2,3].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습 이수기준완화 정책에도 사회복지실습기관은 집단감염의 우려로 실습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습장을 개방하지 않거나 실습승인을 취소하는 등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앞둔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했다. 일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은 코로나19가 소강상태가 될 때 까지 최대한 실습을 연기하기는 움직임도 있었고, 졸업을 앞둔 재학생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해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코로나19 대 유행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을 완화하는 안내를 발표하여 실습 주체인 학생과 학교, 기관의 혼란을 줄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국내외 현장실습현황과 대학교육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2020년 6월, 12월에 나누어 발표 [2-3]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교육방향을 제시하며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코로나19는 다양한 형태로 변이바이러스를 양산하며 추가 전파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경험한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의 실습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고, 실습 전후 사회복지직의 이미지와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의미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K사이버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2학기에 160시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참여한(2020년부터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법 대상자) 11명의 재학생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2020년 9월~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파로 국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접종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다.

인터뷰는 2020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완료된 시점인 12월 5일 K사이버대학교 강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연구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연구에 필요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비밀유지 및 참여를 거부 할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대상자들에게 참여를 허락 받고 양해를 구한 후 면담을 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녹음 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면담내용을 전사해 연구목적과 주제에 맞게 재분류를 하였다.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반구조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

실습에 참여한 재학생은 2020년 K사이버대학교 3학년에 1학기에 편입하여 실습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필수과목을 교육받고(K 사이버대학교 내규) 2학기에 실습을 참여한 학생들이며,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자는 타 학과 전공생으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하여 4학년 1학기에 실습을 위한 이수 교과목을 마친 후 2학기에 실습에 참여한 재학생이다.

4.2 연구대상자의 특성

실습에 참여한 재학생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8명(72.7%), 남학생이 3명(27.3%)이다. 학년의 경우 3학년이 8명(72.7%), 4학년은 3명(27.3%)이다. 평균연령은 45.2세 였으며,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48세,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44.1세로 나타났다. 전공학과는 사회복지학과가 7명(63.6%), 복수전공자 3명(27.3%), 보건복지학과 1명(9.1%)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분야는 노인복지 5명(45.5%), 아동복지 4명(36.4%), 가족복지와 장애인복지가 각각 1명(9.1%)이다.

실습지역은 대전 6명(54.5%), 충남, 서울이 각각 2명(18.2%), 부산 1명(9.1%)이다. 실습기관 유형은 이용시설 8명(72.7%), 생활시설 3명(27.3%)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Gender	Grade	Age	Department	Field of Practice	Type
A	Female	4	49	Social Welfare Double Major	old man	Facilities used
B	Male	3	56	Social Welfare	child	Facilities used
C	Female	3	43	Social Welfare	child	Facilities used
D	Male	3	28	Social Welfare Double Major	old man	living facilities
E	Female	4	45	Social Welfare Double Major	old man	living facilities
F	Female	3	39	Social Welfare	child	Facilities used
G	Female	3	38	Social Welfare	Family	Facilities used
H	Female	3	38	Social Welfare	Disabled	Facilities used
I	Male	3	60	Health and Medical Welfare	old man	living facilities
J	Female	3	40	Social Welfare	child	Facilities used
K	Female	4	61	Social Welfare Double Major	old man	Facilities used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1

Division	N	%	
Gender	Male	3	27.3
	Female	8	72.7
Grade	3rd year	8	72.7
	4rd year	3	27.3
Department	Social Welfare	7	63.6
	Health and Medical Welfare	1	9.1
	Social Welfare Double Major	3	27.3
Field of Practice	Child	4	36.4
	old man	5	45.5
	Family	1	9.1
	Disabled	1	9.1
Practice Area	Seoul	2	18.2
	Daejeon	6	54.5
	Chungnam	2	18.2
	Busan	1	9.1
Institution Type	Facilities used	8	72.7
	living facilities	3	27.3

4.3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어려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경험에서의 어려움은 '시간상의 어려움', '실습기관의 실습 거부', '체험하고자 하는 실습현장이 아닌 나를 받아주는 곳에서 실습', '실천현장의 제한된 경험', '실습 중단의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각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1 일 학습 병행으로 실습시간 조율의 어려움

사이버대학교는 교육 수요자의 목적과 형편에 맞게 학습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직장인에게 환경적으로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6,7]. 실습에 참여한 많은 재학생은 직장과 일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위해 직장의 근무시간과 실습현장의 시간을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교육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습의 경우는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버대학교의 교육적 장점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서 실습을 병행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걱정이 되었어요.
(연구대상자 C)

저는 병원에서 신입간호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현장 실습이 미뤄지면 안되고 시간내에 무사히 실습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었어요. 실습일정이나 시간을 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신입직원이라서요.
(연구대상자 D)

저는 직업 형편상 하루에 4시간씩 실습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근무 일정상 하루에 8시간씩 할 수 없어서지요. 4시간만 실습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연락을 해도 받아주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실습기관에서 하시는 말씀은 8시간씩 꼭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실습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려웠어요.
(연구대상자 E)

4.3.2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한 실습기관의 원활치 않은 실습 상황

2020년 초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감염 전파 사례가 나타나며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시설에서 실습생이 실습 도중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실습생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들은 실습생을 배치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했다. 실습을 준비하는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육공급(실습기관)처가 줄어들어 실습을 진행하기도 전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실습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실습 바로 앞두고요. 직장의 스케줄 맞추어서 한달 전에 실습가능하다고 서류 작성하고 학교에 서류 제출까지 다했는데, 하루 전에 실습이 안된다고 했어요.
(연구대상자 D)

코로나 상황이니까. 코로나 이유를 대면서 실습을 거부 했어요. 실습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코로나 이유로 실습을 거부 하였어요
(연구대상자 G)

코로나 상황으로 실습을 거부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직장일을 하며 실습을 끝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스트레스가 컸어요.
(연구대상자 H)

4.3.3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제한된 경험과 낮은 질의 실습 수퍼비전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유행으로 실습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실습기관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축소 운영,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접촉을 제한함으로 인해 다양한 실천현장의 경험이 제한되었고 아쉬웠다고 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클라이언트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보완해 가는 기회[10-13]를 가지게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습의 교육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실습메뉴얼을 바탕으로 실습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며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4-15]. 즉 실습이 무슨 내용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습지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 실습기관마다 구체적인 콘텐츠가 필요한데, 일부 기관의 경우 실습내용이 미흡하여 실습에 대한 교육적 성과를 낮추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코로나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어렵게 구해서 힘들게 면접도 보고 실습이 가능하다고 해서 갔는데 실습기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상호작용하는 것을 제한하다보니... 레포트만 쓰다 온 것 같아요.

(연구대상자 A)

지역아동센터에 실습을 갔는데, 아동들 그림그리기 봐주기, 학습지 함께 풀기 등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아이 돌보미로 있다는 느낌이었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아이돌봄하러 간 것 같아요.

(연구대상자 F)

협소한 기관이었는데 여러 부분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일이 없는 것 같고, 이론적으로 과제만 주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연구대상자 B)

현장실습지에서 청소하고 책정리 하고 코로나 때문에 실습은 거의 제대로 못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어요. 담당사회복지사도 재해 비상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쉬웠어요.

(연구대상자 I)

요양원 실습때, 당시 다른 지역에 입소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다고 뉴스에 나올때라 코로나로 외부의 차단에 신경 쓰는 시기였지요. 제가 실습하는 곳 1층엔 직원만 있고 2층엔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외부와는 완전 차단해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차단하고 다행히 실습기간 중에 어르신을 2번 정도 뵈는 적은 있어요. 서류 관련 일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대상자 J)

제가 실습을 간 곳은 여성사회복지사만 계셔서 설비 일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세면대 사다 기관에 달아주고 하수도 막힌 곳 뚫어주고, 시설 입구에 감나무 베어주고, 설비 일을 20가지 이상했어요. 드는 생각은 내가 이런 것 하러 여기 왔나 싶기도 하고...

(연구대상자 B)

4.3.4 이론적 관심을 가지고 체험하고 싶었던 사회복지실습현장에서의 실습이 아닌 나를 받아주는 기관에서의 실습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를 발표하며(2020년 5월20일 보건복지부)실습생과 실습기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코로나 백신도 확보 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기관의 실습장 개방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실습생의 입장에서 사회적 위기 상황으로 실습교육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아쉬움은 남아 있었다.

저는 생활시설에서 실습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쪽으로 실습을 가야 되는데 생활시설에서는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 기관 사람들이 외부인들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가 기관에 전파되어서 클라이언트에게 피해가 가면 어쩌냐고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습현장을 보고 싶었는데요. 결국 제가 원하는 실습 현장이 아닌 저를 받아 주는 곳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구대상자 K)

코로나 때문에 노인복지쪽으로 실습을 했어요. 저는 원래 다른 복지영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나를 받아 주는 곳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했고 지금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다르다고는 생각해요.

(연구대상자 I)

솔직히 다문화나 성폭력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을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실습을 받지도 않았고 접근이 힘들니까.

(연구대상자 F)

4.3.5 실습 중단에의 두려움

실습생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실습이 중단되거나 자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기관과 직장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나타날까 심리적으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경험한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가중된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습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중간에 실습을 중단하면 어쩌나, 직장엔 성실히 실습하고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잘 끝낸다고, 또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쩌나, 나는 간호사인데, 내가 음압병실로 가야 하나, 시설은 나로 인해 중단되고, 나도 실습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쩌질지 불안했습니다.

(연구대상자 D)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외출도 줄고 모든 현실이 힘든데, 현장실습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실습현장에서 실습을 중단시키면, 일도 병행해야 하는데... 중간에 멈추면 어쩌나...스케줄도 뒤죽 박죽 될텐데, 불안했어요.

(연구대상자 F)

실습할 때 내가 코로나 걸려서 중간에 아프면 어쩌나, 실습기관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연속되는 날이었어요. 실습 내내 불안감이었습니다.

(연구대상자 H)

처음엔 실습을 못 받았다고 한 기관에 사정해서 실습이 시작되었는데, 실습기관에서 코로나가 심해져서 실습이 중간에 중단되어서 실습이 미루어질까봐 불안했어요.

(연구대상자 J)

4.4 사회복지현장실습 후 긍정적 경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실습은 그들에게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 실망, 제한된 교육의 경험을 안겨주었지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갖는 배움의 시간이었고, 실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라포형성은 전문적인 기술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4.4.1 사회복지에 대한 확장된 이해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의미 확장, 클라이언트와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향상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며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의 이해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클라이언트의 이해 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사회복지사라는 아무 개념도 없이 복수전공해서 자격증은 졸업하면 나오는 것이고 실상 가격증 가지고 무슨일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하면서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사와 소통하고 접하다 보니 광범위하게 느꼈고, 무한정 공부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습을 통해 눈을 뜬 것은 이론 쪽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고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분야에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구나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부분으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연구대상자 A)

실습 전에는 사회복지사는 봉사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쉬울까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님의 하는 일을 막상 보니까 항상 서류는 많고 센터장은 밖으로 다니면서 후원사업과 지역 연계하러 다니고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구나 폭넓게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연구대상자 B)

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불쌍한 시선이 있었어요. 조금 불쌍하게 생각도 했어요. 실습을 하고 보니 클라이언트는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들이었어요.

(연구대상자 F)

사회복지에 대해 느낀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기관은 서류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은 기본이구요. 사회복지사님들 중에 대학원 나오신 분도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셨어요. 사회복지가 봉사정신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구대상자 G)

사회복지라는걸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만 막연하게 했던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요.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서비스 대상이 될수 있고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쉬운일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행정적인 것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 처음부터 열까지 손이 안 가는 것이 없었고 프로그램들, 각기 다른 행사나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실습에 단기간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부분만 내가 알고 있구나. 아직도 넓고 배워야 할것이 많구나 생각했고 사회복지가 딱 어려운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라는걸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연구대상자 H)

실습 가니까 사회복지사님이 컴퓨터를 얼마나 다룰 줄 아느냐 물어보시고 나는 혼자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 강의 들으려고 배운 것밖에 없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봉사정신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서류로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기에 컴퓨터 활용능력은 필요했습니다. 작성된 행정 문서 내용물들을 보니 모든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연구대상자 I)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저는 전문성은 알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따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습 160시간만에 이런 생각 하면 안된다는걸 알았어요. 실습을 끝내고 나서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연구대상자 K)

저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지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개념만 알았거든요. 이론 공부를 하면서도 알게 되었지만 실습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각 역할과 업무를 알게 되었어요. 실습하면서 내가 자격증 따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 실습을 통해 아주 종합적인 학문으로 사회복지 공부를 마무리하고 나도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대상자 I)

4.4.2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진정한 의미 이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익혔고, 실천을 통해 내담자의 소극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클라이언트의 변화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전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개념화하고 재구성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필요로 하는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아이들하고 긴 실습기간 동안 나에게 말도 하지 않는 여자아이와 조금씩 조금씩 눈빛으로 웃으며 소통하며 관찰하며 변화를 보았지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귀중한 경험이었고 소중한 현장실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대상자 C)

여러 가지 상황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실습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의 항로를 어떤 분야로 가야 할지를 좀 더 깊이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연구대상자 D)

4.4.3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의 중요성 인식

UN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도 영향을 미치며인권은 복지수급자의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조되어[8] 인권은 중요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화두가 되었다. 인권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다[9]. 사회복지지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11]. 즉 인권은 사회복지의 공통분모이며 다양한 사회복지실습현장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요소임에도 여전히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참여한 재학생들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배우고 느꼈다고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경험이 인권의 의미를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센터장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했어. 센터 내에서 자기 일만 하는 분도 있었고, 그냥 돈 벌러 오는 사람도 있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보았어. 실습 하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는 인권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지켜 줬으면 좋겠어.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고운 말로 잘 대화를 유지하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갈꺼데요. 깊은 경험했습니다.

(연구대상자 E)

4.4.4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라포형성의 중요성 인식

라포(Rapport)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가 신뢰와 공감을 형성하는 상호인간적인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10].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라포형성은 원활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11].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온전한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관계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학생은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통해서 슈퍼바이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통하며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면서 클라이언트를 지도 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고 그런 상황 판단을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이끌어내야 하고. 상담과 대화로 클라이언트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 라포를 형성하고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계획하고 지도할 때 라포형성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연구대상자 I)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경험한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의 실습 경험에 대해 알아 보았고, 실습 전후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탐색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160시간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한 K사이버대학교 재학생 11명을 면담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학생의 관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의미를 담아내었다는 것이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감염병 상황에서 실습의 어려움은 일 학습 병행에 따른 시간조정의 어려움,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실습 기관의 원활치 않은 실습 진행, 재난 상황으로 인한 실습현장에서의 제한된 실습경험과 낮은 질의 슈퍼비전, 관심이 있는 실천 현장에서의 실습이 아닌 나를 받아주는 실습 기관 선택,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실습 중단의 두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실습 후 학생들이 인식한 실습의 긍정적인 경험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라포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정이며, 예비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역량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실천지식을 경험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현장을 익히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COVID-19 전염병 상황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능과 역할을 익히는 과정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초유의 COVID-19 전염병 상황에서 실습생들이 경험하는 현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최대한 효과적인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침 사항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 국민의 COVID-19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실습 진행에 대한 어려움은 컸다고 할 수 있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재학생들에게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실습 기간 내내 경험하게 하였으며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COVID-19 대유행의 종식에 예측불가한 상황에서 우수한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적절한 실습관리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적절한 지도와 실습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재난 위기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원할치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직접 체험을 대신하는 확장된 경험을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인 간접 체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OVID-19 전염병 상황은 이미 우리 사회는 물론 사회복지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COVID-19 대유행의 빠른 종식에 대한 염원은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며 바람이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COVID-19 위기의 벽은 또 다른 대안을 생성하는 기회의 과정으로 생각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재난 위기를 겪으며 추후에도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속에서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탄력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현재의 COVID-19 상황이 의미있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실습 기관과 학교, 보건복지부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형식은 과감히 재구성하고 교과목의 수업 목적은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전염병 상황에 역량 있는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창조적이며 급변하는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과정의 개발을 제안해 본다.

REFERENCES

- [1] N. R. Bae. (2018).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irection of Social Work Field Practicum-Focused o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197-211. DOI : 10.5762/KAIS.2018.19.12.197
- [2] C. S. Nam. (2020). *Social Work Curriculum Guide*, Seoul: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ublishing.
- [3] C. S. Nam.(2020). *A study on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education plan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 era*, Seoul: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Publishing.
- [4] H. M. Kim & K. H. Choi. (2020). *Review on the current status of field training at home and abroad and how to respond to social welfare field training university education in the midst of the pandemic of Coronavirus 19 in Korea*. Seoul: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 [5] O. S. Lee & J. H. Lim. (2021).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5), 479-488. DOI : 10.14400/JDC.2021.19.5.479
- [6] N. R. Bae. (2019). A Study on the Motivating Factors Affecting the Middle-Aged People in Choosing Major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 96-102. DOI : 10.5762/KAIS.2019.20.1.96
- [7] N. R. Bae. (2020). A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Motives of Higher-Educated Adult Learners.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82-191.
DOI : 10.5762/KAIS.2020.21.12.182

- [8] J. Y. Park. (2016). The Study on Social Worker's Attitude to Human Righ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33, 1-27.
UCI : G704-SER000010583.2016.33..003
- [9] J. H. Ryu & C. Y. Her. (2009). Factor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Human Right and Their Impacts on the Attitude of Human Right. *Journal of Demorcry and Human Rights*, 8(1), 175-210.
UCI : G704-001616.2008.8.1.006
- [10] J. Y. Ahn(2017). Difficulties of building rapport between qualitative researcher and participants in multicultural contex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2(2), 31-59.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1773>
- [11] G. Y. Lee & M. M. Choi. (2006).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profession". *The 2006 Korean Society for Social Welfare Spring Conference*, 74-108.
- [12] B. J. Lee, H. G. Kang & M. M. Choi. (200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and Qualification System for Social Work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Foundation.
- [13] S. H. Jung & J. S. Kim. (2014). "A Study on the Reform of Social Welfare Course on the Change of Korean Societ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Korea Social Welfare Education Council*, 13-42.
- [14] J. S. Park. (2018). "Status of Remote College Curriculum and Reorganization Plan" Social Worker Certification Course Reorganization Course Discussions. *Korea Social Welfare Education Council*, 3-22.
- [15] M. D. Kim. (1990).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ractical training" *1990 Association of Korean Social Welfare College report*.

배 나 래(Na-Rae Bae)

[정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문화복지, 문화컨텐츠
- E-Mail : victory0302@kycu.ac.kr

김 지 운(Ji-Woon Kim)

[정회원]



- 2002년 8월 : 배재대학교 대학원(석사)
- 2015년 8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10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복지, 사회복지
- E-Mail : bella1456@kycu.ac.kr